

평등사회를 향한 파트너십

백영숙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우리가 사는 이 사회의 세상은 사회구성원들의 관계 다양한 밸런스 이나
국채채등의 추위로 예전에 비해 생각하지 못했던 사회문제들이 부각되고 있어서
총체적인 정부만의 대응 기업만의 기능으로 문제해결이 불가능하게 된 것이
현실이다. 정부, 기업 그리고 시민사회의 상호간의 협력으로 이루어지는 파트너십
시대가 된 것이다. 정부의 제도도 통치(government)에서 파트너십에 의한
관리(governance)로 바뀌고 있다.

파트너십이란 영역간의 제휴를 통해 다양화하고 사회적 문제를 투명
하고 공정하게 그리고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려는 활동방안으로서 국제기구
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파트너십의 강점은 각 부문이 담당하고 있는
재능, 자원, 전문성 등을 활용하므로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 영향력을
크게 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최근 우리사회에 기업의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는 비영리기업들이
급증하고 있다. 더구나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인식이 커졌다.
기업들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자체 조직 내부에
사회공헌사업을 전담하는 팀을 설치하고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데 힘을 보주고 있는
자원을 아낌없이 내어놓음으로 사회공익에 이바지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들의 사회공헌사업을 장려하기 위해 전정권에서는 <1%클럽>을
조직하고 우리나라의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총괄하기로 한다.

다른 한편 근래에 와서 급속장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들은 우량인
군거하고 있는 활동의 내용으로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사회적 약자
를 돕는 등래의 활동성격에서 환경문제, 인권문제, 평화문제 등을 포함
한 사회의 제반문제에 본격적으로 대처하는 방향으로 전환되면서 지역
단체의 가장 큰 어려움은 재정확장의 문제이다.

근래에 와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은 지금까지의 관례처럼 시민단체
에게 금전적공방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단체들과 공동사업을
전개하므로 지역사회에 보다 가깝게 다가가는 노력을 하게 되었다.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파트너십을 시민단체 선정도 기업이념에
대응 하게 된 것이다. 대개의 경우 민간재단과 같은 공공기관
을 통해 개개의 시민단체와의 연계를 갖게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단체의 정체성을 유지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므로 해서 비영리 한다.

교보생명에서는 2002년 12월 11일에 <교보 다함께> 사회봉사단을
창간하여 사업들의 역점주목을 돕는다는 기업이념에 따라 사회공헌
사업의 사명을 건강, 복지, 지역의 필요로 역점에 치해 있는 사회
문제를 돕는 것으로 정하고 그와 관련된 일을 하는 활동을 지원해 주고
있다.

교보 다짐이 사회봉사회장이 신장재 회장으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 하자는
전제하에 이젠까지 사회봉 양지에 머물러 있는 여생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 생각해보자. 기쁘게 있을 때 비록 "여생들의 집사들을 깨우고
기우는 것이 사회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는 신념을 품고 있다. 오고 있기 때문
이다. 또한 회장은 교보생명의 사회공헌사업의 신장에 있어서는 기꺼운 여생의
원칙을 적용해서 그 생애를 평평하게 디자인하고 한다.

교보생명은 평등생애를 위한 사회공헌사업의 디자인으로 많은
아들들과 함께 거세게 한국을 떠돌아다니는 기쁨으로 우뚝 설 수 있는 밝은 미래
를 꿈꾸고 있는 한국여생 재단을 설립 하였으며. 교보생명은 4000여개
의 여성단체들과 함께 하고 있는 여성재단을 통해 우리 사회의 대표자인
소외계층인 외국인 여성노동자들을 위한 사기지원을 시작으로 <222여생
그리고 김로움> 사업과 한국의 여성단체 활동이 필요로 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공급망의 지원을 이젠 많이 하고 있다.

특히 <222여생 그리고 김로움> 사업은 활동비에서 못배리는 생생라인으로
부족으로 인한 미미한 업무로 힘쓰고 소진된 여성공인 활동가들에게
피로회복과 재충전 그리고 활동비로서의 비전을 재충전하여 열대강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젝트로써 주력으로 사업하는 222에는 교보
생명이 전적으로 지원하게 되어 여성노동계는 고무되어 있다. 여성재단이
비밀하는 이 사업이 교보생명의 여성재단이 안락하고 장기간인 <평등
사회를 지향한 디자인> 사업으로 정착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다.
222으로 국민소득 2만불시대 달성에 필요로 하는 여성지도력 육성에 이바지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교보생명의 여성재단의 평등사회를 지향한 디자인은 성공할 것으로
판단. 이것은 디자인의 성공요인인 양기구의 분명한 이념과 성숙한 지도력,
구체적인 전략적인 활동, 상호이해와 신뢰구축 특히 교보생명이 중도기구의
여성재단을 디자인으로 한 것이 교보생명의 여성을 위한 사회공헌사업의
내용을 통틀어 한 것이 있기 때문이다. 디자인을 돈독하게 하기 위해
양기구가 수시로 대화할 수 있는 장의 마련도 유용할 것이다.

앞으로도 교보생명은 여성재단 행진이 이념, 실제 각 부문의 사회단체
로 다양한 문제를 수행한 디자인을 주축으로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드는
기초에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 모든 사람들이 삶의 양상을 극복하고
원래의 행복한 인생을 누릴 수 있도록 품어주는 일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 이러한 교보생명의 평등이념을 적극 실현해나가는 이 순간에도
묵묵히 임하고 있는 교보다짐이 봉사회장과 교보생명의 임직원들에게
하늘의 축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하며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평등세상을 향한 파트너십>

박영숙(한국여성재단 이사장)

우리가 사는 오늘의 세상은 사회구성원들의 요구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국제화 등의 추세로 예전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사회문제들이 분출하고 있어서 종래처럼 정부만의 또는 기업만의 기능으로 문제해결이 불가능하게 된 것이 현실이다. 정부, 기업 그리고 시민사회의 상호간의 협력으로 이루어지는 파트너십시대가 된 것이다. 정부의 체제도 통치(government)에서 파트너십에 의한 협치(governance)로의 전환을 요구받고 있다.

파트너십이란 영역간의 제휴를 통해 다양화하는 사회적 요구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그리고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려는 활동방안으로서 국제기구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파트너십의 강점은 각 부문이 답지하고 있는 재능, 자원, 전문성 등을 활용하므로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영향력을 크게 할 수 있다는데 있다.

최근 우리사회에 기업의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는 바람직한 기업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어서 더불어 사는 사회건설에 파란 신호등이 켜졌다. 기업들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자체 조직내부에 사회공헌사업을 전담하는 팀을 설치하고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가 하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아낌없이 내어놓으므로 사회공익에 이바지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들의 사회공헌사업을 장려하기 위해 전경련에서는 <1%클럽>을 조직하고 우리나라의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총괄하기도 한다.

다른 한편, 근래에 와서 급성장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들은 수적인 증가와 함께 활동의 내용에도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사회적 약자를 돕는 종래의 활동성격에서 환경문제, 인권문제, 평화문제 등을 포함한 사회의 제반문제에 본격적으로 대처하는 방향으로 전환되면서 직면하게된 가장 큰 어려움은 재정충당의 문제이다.

근래에 와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은 지금까지의 관례처럼 시민단체에게 금전제공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단체들과 공동사업을 전개하므로 지역사회에 보다 가깝게 다가가는 노력을 하게 되었다. 사업의 우선 순위 결정과 파트너가 될 시민단체 선정도 기업이념에 따라 하게 된 것이다. 대개의 경우 민간재단과 같은 중간기구를 통해 개개의 시민단체와의 연계를 가지게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단체의 정체성을 유지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기도 해서 바람직하다.

교보생명에서는 2002년 12월 11일에 <교보 다숨이> 사회봉사단을 창단하여 사람들의 의역극복을 돕는다는 기업이념에 따라 사회공헌사업의 사명을 건강, 돈, 지식의 결핍으로 역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돕는 것으로 정하고 그와 관련된 일을 하는 활동을 지원해오고 있다.

교보 다솜이 사회봉사단장인 신창재 회장은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아직까지 사회적 약자에 머물러있는 여성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기회 있을 때마다 "여성들의 잠재력을 깨우고 키우는 것이 사회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는 신념을 표명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회장은 교보생명의 사회공헌사업의 선정에 있어서도 기업운영의 원칙을 적용해서 그 생산성을 냉정하게 따진다고 한다."

교보생명은 평등세상을 위한 사회공헌사업의 파트너로서 딸들도 아들들과 함께 21세기 한국을 떠받치는 기둥으로 우뚝 설 수 있는 밝은 미래를 꿈꾸고 있는 한국여성재단을 선택하였다. 교보생명은 4000여개의 여성단체들과 함께 하고 있는 여성재단을 통해 우리사회의 대표적인 소외계층인 외국인 여성노동자들을 위한 사업지원을 시작으로 <짧은 여행, 그리고 긴 호흡>사업과 전국의 여성단체 활동이 필요로 하고 있던 빔프로젝터 공급등의 지원을 아낌없이 하고 있다.

특히 <짧은 여행 그리고 긴 호흡>사업은 활동내에도 못미치는 박봉과 인력부족으로 인한 과다한 업무로 심신이 소진된 여성공익활동가들에게 피로회복과 재충전 그리고 활동가로서의 비전을 재정립하며 연대강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작년도에 시작된 이 사업이 금년도에는 교보생명이 전적으로 지원하게 되어 여성운동계는 고무되어 있다. 여성재단이 바라기는 이 사업이 교보생명과 여성재단이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평등사회를 지향한 파트너십>사업으로 정착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민소득 2만불시대 달성에 필요로 하는 여성지도력 육성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교보생명과 여성재단의 평등사회를 지향한 파트너십은 성공할 것으로 믿는다. 이유는 파트너십의 성공요건인 양기구의 분명한 이념과 성숙한 지도력,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 상호이해와 신뢰구축 특히 교보생명이 중간기구인 여성재단을 파트너로 한 점이 교보생명의 여성을 위한 사회공헌사업의 내용을 풍요롭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파트너십을 돈독하게 하기 위해 양기구가 수시로 대화할 수 있는 장의 마련도 유용할 것이다.

앞으로도 교보생명은 여성재단뿐만이 아니라 사회 각 부문의 시민단체들과 다양한 과제를 수행할 파트너십 구축으로 더불어사는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 모든 사람들이 삶의 역경을 극복하고 보람있는 행복한 인생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다는 일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 이러한 교보생명의 경영이념을 적극 실천하면서 이 순간에도 묵묵히 일하고 있는 교보 다솜이 봉사단원과 교보생명의 임직원들에게 하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이제부터는
여성단체들과
336개 단체를
이로써
되기
는 교보생명이
여성단체들과
공동으로
하는 것이
지리나
기다